



대구 비트정보신문

(http://www.bitcom.co.kr)

=학원광고지=

2000년 9월

<계간>

고액연봉



고액 연봉시대

= 자바개발자, IT컨설턴트, 웹마스터, IT업체, 기업스카웃 "표적" =

있으며 일부 전문인력은 동시다발적인 스카웃 제의로 몸값이 치솟고 있다. 전문적으로 인력을 찾아주는 헤드헌터사도 의뢰건수가 연초대비 30~40% 늘어나는 등 때아닌 호황을 누리고 있다.

IT업체와 기업들은 공개채용과 헤드헌터 밖에도 내부인력의 연줄을 동원하는 등 인력확보에 안간힘을 쓰고 있으나 전문인력이 워낙 적어 당분간 인력난을 겪을 전망이다.

■웹마스터

웹사이트를 구축한 기업에 꼭 필요한 인력. 기업들은 그동안 자체 전산인력을 웹마스터로 활용해 왔으나 웹사이트를 단순한 홍보 차원을 넘어 자사의 마케팅 및 신규사업과 연계할 필요성이 증대되자 기술뿐만 아니라 마케팅, 경영에도 정통한 전문가를 서둘러 찾고 있다.

그렇지만 이를 겸비한 전문가는 국내에 거의 드문 실정. 대기업들은 자체 전산인력에 대한 경영교육을 강화하거나 또는 헤드헌터 등을 통해 외부인력을 스카웃하는 등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으나 당장 쓸만한 인재를 찾지 못해 애태우고 있다.

■자바개발자

인터넷 환경의 급속한 확산으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직종. 현재 자바를 공부하는 사람도 많으며 관련 자격증도 만 전문가도 적지 않으나 개발 경험을 가진 전문 인력은 국내에 거의 없다시피 한 실정이다. 자바개발자에 대한 수요는 적은 수이나마 인력을 보유한 외국계 솔루션업체에 비해 인터넷분야로 영역을 확장하는 시스템통합(SI)업체와 SW벤처기업 등에서 높다. 또 외국계 투자은행을 비롯한 금융권과 일반기업, 그리고 공공기관에서도 기존 정보시스템을 인터넷 기반으로 재구축하면서 자바전문가들을 경쟁적으로 찾고 있다.

하지만 자바개발의 역사가 짧은 탓에 기업들은

실무에 곧바로 투입할 수 있는 자바개발자를 찾지 못하고 있으며, 기존 인력에 대해 자바기술을 교육하는데 그치고 있다.

한국썬마이크로시스템즈의 한 관계자는 '자바개발자에 대한 높은 수요에도 불구하고 자격증을 가진 전문가가 이제 배출되기 시작해 수급불균형이 당분간 해소되지 않을 전망이다'이라고 말했다.

■IT컨설턴트

전사적자원관리(ERP), 데이터웨어하우스(DW), 전자상거래(EC) 등에 대한 컨설팅시장의 급팽창으로 IT컨설턴트도 '귀한신 몸'이 되고 있다. 특히 ERP 컨설턴트는 최근 대형 ERP 프로젝트가 쏟아져 나오면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 앤더슨컨설팅, 딜로이트컨설팅 등이 지난 상반기에 각각 수십명의 ERP 컨설턴트를 신규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반기에 또다시 수십명씩 신규 채용할 방침이다. 컨설팅업체들은 이미 다수 확보한 SAP 인력보다는 오라클, JD에드워즈 등에 대한 인력을 대거 확충할 계획이다. 또 하반기부터 DW, EC 프로젝트가 잇따라 발생해 해당 지식을 보유한 컨설턴트에 대한 수요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같은 수요증가에 비해 컨설턴트 공급이 미비한데다 풍부한 프로젝트 경험을 가진 전문인력은 더욱 부족해 IT컨설턴트의 인기를 앞으로 2, 3년 동안 상종가를 누릴 전망이다.

헤드헌터사인 AHR코리아의 한나미 실장은 '국내 IT인력은 시장이 워낙 좁기 때문에 업계에서 유명한 고급 인력을 찾는 일은 쉬우나 실무인력을 찾는 일이 더욱 어렵다'고 말했다. 인력양성에 앞서 적은 수이나마 현 인력정보를 활발하게 교류하는 장의 마련이 절실함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 <ETNEWS 발췌>

인터넷을 비롯한 새로운 정보기술(IT)환경의 도래로, 웹마스터 자바개발자, IT컨설턴트 등의 인기가 최근 급상승하고 있다.

IT업체는 물론 정보화 투자에 나선 기업들은 새로운 정보시스템을 설계하거나 운영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앞다퉈 확보하기 시작했으며, 특히 자바개발자, 컨설턴트, 웹마스터 등 3개 직종에 수요가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전문인력은 수요에 비해 공급이 크게 달려 IT업체와 기업들은 인력확보에 차질을 빚고

Microsoft Certified

Technical Education Center

Microsoft Certified Solution Provider

KITRI

한국정보기술연구원



정보통신진흥협회인증 정보검색사 전문교육학원

무료 진로 상담 및 공개 강좌 강사: 김 상 희(마이크로소프트 공인강사)

① Web-master, MCSE, Web-design

8월 31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 9시까지

② Jaba developer

9월 1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 9시까지

1차개강: 9월 1일(금요일) = 대구 유일 마이크로소프트 공인 교육센터 =

2차개강: 9월 4일(월요일) <http://www.bitcom.co.kr>



비트컴퓨터학원

상담문의 (053)428-3230~1

비트 사이버 강의

http://www.bitcyber.co.kr

Internet가상 강의 실시!!
비디오 강의 실시!!



"합격의 그날까지!!"
JJH와 함께 하는
명쾌한 강의!!

BIT INFORMATION

- ◆Web-Master
- ◆Web-Developer
- ◆Web-Designer
- ◆MCSE

- ◆Bit-Developer
- ◆정보처리기사
- ◆Computer Graphic
- ◆인터넷, 컴퓨터 실무, Office과정

웹마스터 A에서 Z까지~~!!

한국전산원에 따르면 오는 2002년 인터넷 이용자수가 1000 만명에 이를 전망으로 '웹마스터'는 인터넷시대를 대표하는 직업이다. 인터넷이용자 수가 늘어나면서 기업체의 웹마스터 수요도 급증 추세로 인터넷상에 홈페이지와 같은 웹사이트를 기획 구축하고 지속적인 정보제공공간과 대화창구로서 활용될 수 있도록 운영 전반에 걸쳐 실무적인 책임을 담당하는 것이 웹마스터의 역할이다. 영화로 따지면 감독에 비유할 수 있다. 영화의 시나리오 선택과 구성 연출 홍보 등 모든 책임과 권한은 감독에게 있다. 웹마스터 역시 사이트상에서 이용자에게 제공할 서비스의 내용을 선택하고 기획 구축하는 외에 제작후 사후관리까지를 총괄하게 된다. 예를들어 요즘 어린이들에게 인기가 높은 영화 용가리의 인터넷홈페이지를 만든다고 가정해보자. 웹마스터는 홈페이지에 어떤 내용을 싣고 구조는 어떤 형식으로구성할 것인지 또 홈페이지 내에 어떤 이벤트를 올려 예비고객을 극장으로 유도할 수 있겠는가를 기획한다.

그리고 광고카피처럼 세련된 문장과 어구를 취사



관련 기사를 검색하고 방문자들의 관심을 끌만한 정보를 수집해 홈페이지에 올리는 작업도 웹마스터의 역할이다. 웹마스터는 특별한 전공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전산학과를 졸업한 사람만이 웹마스터가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가. 용가리 홈페이지의 웹마스터라면 영화에 대한 풍부한 지식(영화전공학도면 더 좋을 일이다.)과 전산 관련 지식을 갖추면 될 일이다.

선택한 뒤 디자이너와 협의해 색상을 결정한다. 실제운영에 들어가는 웹사이트 방문자나 고객이 보낸 수 백통의 전자메일을 확인하고 응대해야 한다. 국내외 각종 신문이나 인터넷에 등장한 용가리

법무법인의 홈페이지라면 법학을 전공하고 기본적인 전산능력에 마케팅과 콘텐츠개발에 관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면 안심맞춤이다. 실제로 기업체에서는 웹마스터 선발 때 고객에게 접근할 수 있는 마케팅 능력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홍보 광고 파트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웹마스터로 직종을 전환하는 경우가 많다. 일부 2년제 대학에 웹마스터관련 학과가 개설돼 있고 6개월 안팎의 양성코스를 운영하는 전문전산학원이 속속 등장하고 있는 추세다. 학원의 경우 기획이나 마케팅보다는 웹마스터로서 꼭 필요한 엔지니어나 프로그램 기술을 주로 가르친다. 웹마스터는 신입사원의 경우 연간 1300만~1800만원의 연봉 수준이다. 보통의 경우 웹마스터들은 연봉제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전년도 실적에 따라 연봉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기업체 직원으로 소속되면 그 회사의 임금규정을 적용받게 된다.

- <매일경제 신문 발췌>



“웹마스터” 알아두어야 할 사항 이모저모 ?!

▶ Introduction

웹마스터란 웹서버 구축 및 관리와 홈페이지 운영 전반에 걸쳐 실무적인 책임을 지는 직책입니다. 자그마한 사이트라면 개인이 될 수도 있고, 조금만 큰 업체의 웹사이트라면 팀 단위가 웹마스터가 될 수 있으며 또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웹마스터는 웹 관리자 혹은 웹 매니저라고도 불려집니다. 웹마스터는 웹사이트 관리를 위한 전문적인 기술과 지식을 가지고, 제공코자하는 정보를 계속적으로 갱신함으로써 웹사이트가 구축목적에 맞게 발전해 가도록 관리하고 책임을 가집니다. 이와 함께 웹사이트의 디자인에 대한 안목도 있어야하며 자신이 관리하는 웹사이트에 최대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웹마스터 세계는 인터넷에 대한 기본적 기술은 물론 웹사이트 기획, 디자인, 구축, 홍보 등 모든 것을 해내는 만능인처럼 인식되어왔습니다. 그만큼 일반적으로 웹마스터가 하는 일은 단순하지 않고, 영역도 방대하죠.

웹마스터를 세분화하자면 웹프로듀서, 웹디자이너, 웹프로그래머, 웹엔지니어, 웹마케팅전문가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웹프로듀서는 인터넷 트렌드를 읽으며 인터넷 기술을 어떻게 활용하고, 어떤 콘텐츠를 웹상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보여줄 것인가를 기획하고 결정하는 일을 합니다. 웹디자이너는 홈페이지 제작 및 구성의 디자인 분야를 전담하며 사용자 인터페이스와 레이아웃, 가이드라인을 적용합니다. 웹프로그래머는 홈페이지에서 운영될 각종 응용 프로그램을 개발합니다. 보통 CGI(C, C++, Perl), Java, ASP, PHP, Visual Basic 등으로 개발하죠. 웹엔지니어는 웹서버 구축 및 운영에 대한 기술적인 책임과 새로운 웹관련 기술의 적용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마케팅전문가'는 웹사이트에서 E-Business를 적용하는 사이트에 필요합니다. 한편 AEA(American Electronic Association)의 조사에 따르면 웹마스터라는 이름으로 구분되는 직업은 약 33가지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예) 인터넷 전략가, 상거래 매니저, 인터넷 전략 디렉터, 등등 정말 전망이 밝죠? ^^

웹디자인의 경우 미술적 감각이 필요하기 때문에 웹마스터와는 별개로 팀의 한 일원으로 웹디자이너가 존재하는게 일반적입니다. 웹마스터는 최소한 한명에서 웹프로듀

서, 웹디자이너, 웹프로그래머, 웹엔지니어까지 4명의 팀으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의 추세처럼 인터넷 비즈니스를 강조한다면 웹마케팅 전문가가 별도로 꼭 필요합니다.

▶ 현황

하루 평균 7~8시간을 인터넷과 밤낮없이 사는 사람들, 그들의 등장은 인터넷이 보편화된 94년도부터지만, 웹마스터란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최근 들어서입니다. 웹마스터의 수는 웹사이트마다 한명씩 따진다해도 엄청나 추산하기 힘들겠죠. 웹마스터들의 출신 성분을 보면, a.전산관리자가 웹마스터가 되는 경우, b.광고 / 마케팅 담당자가 웹마스터가 되는 경우, c.세일즈 담당자가 웹마스터가 되는 경우, d.디자이너가 웹마스터가 되는 경우, e.전문 웹마스터의 경우 등의 5가지가 대부분입니다. 초기의 웹마스터들은 처음에 할 사람이 없어 웹마스터가 되었다는 공통점에서 출발하고 있으나, 일부 웹마스터들은 각종 언론과 인터넷 대상 시상작 평가 전문가로도 활약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서비스업체 아이네트의 웹마스터인 서흥원팀장, 국내 웹마스터의 선구자적인 삼성그룹의 웹마스터 이충경 과장과 정광렬 대리, 코리아링크의 최형인 연구원, 인터넷 검색서비스 업체 심마니의 김보현 과장 등이 유명 인사로 꼽혀 주목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기업들이 홈페이지를 구축하기 시작한 95년부터 선구자적인 활동을 해온 이들은 웹마스터클럽을 결성, 웹관련 정보교류 및 웹마스터의 위상정립과 발전을 도모하며 웹마스터의 세계를 완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 업무관련

웹마스터들은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웹마스터에 대한 개념이 사람들에게 너무 가벼운 것 같다'라고 입을 모읍니다. 컴퓨터를 조금 잘 하는 사람이 본연의 업무에 추가적으로 웹마스터의 일을 맡아 하는 경우도 있고, 웹사이트의 구축 목적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 웹마스터의 일을 맡아하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편 지난해 11월 미국 노동부가 발간한 한 보고서는 96년에 가장 빨리 증가한 직업 중 하나로 웹마스터를 들고 성장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1급 웹마스터의 최저연봉이 10만불정

도이죠.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를 들면.. 웹마스터 클럽 2대 회장 김도연씨는 "얼마전까지만해도 웹마스터란 고유 업무영역이 불분명한 탓에 기존 업무에다 웹사이트 운영업무가 단순히 배가되어 '티가 나지 않는 일'로 보여졌습니다. 하지만 웹마스터를 하는 사람들이라면 즐겁게 자신의 웹사이트에 애정을 담아내고 있지요"라고 설명합니다. 연봉도 1,200~2,500정도이죠. 하지만 웹마스터들은 인터넷에, 자신의 웹사이트에 꼭 빠진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인터넷에 투자하는 시간은 보통 7~8시간이 넘고, 제품 및 책 구입에 투자하는 비용도 다른 직종과는 다르게 상당합니다. 어떤 웹마스터는 재택근무로 하루 모두를 투자합니다. 인정받기를 원하는게 아니라 자신들의 발전과 영역확보를 위해 끊임없이 배우고 변화하고 있는 것이지요.

▶ 얼마나 버는가?

아직은 웹마스터가 정착되지 않은데다 대부분 기업체의 직원으로 소속돼 있기 때문에 회사 월급정도 수준으로 받는 사람이 있는 반면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능력여하에 따라서 좋은 대우를 받을수도 있다 점차, 웹마스터의 역할이 커지고 위상도 높아지면 급여수준도 개선될 게 확실하다. 국내에도 능력에 따라 연봉이 결정되는 연봉제가 확산되는 추세라서 앞으로는 이들 전문가의 고액연봉시대가 열릴 것으로 관계자들은 전망한다. 미국의 경우 웹마스터들의 연봉은 최저 10만달러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 취업현황

요즘은 국내 대기업들의 경우 대부분 홈페이지를 구축해놓고 있다. 중소기업까지 확산되는 추세다. 홈페이지는 기업의 얼굴이나 다름없다. 대외적인 기업이미지를 좌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특히 인터넷 이용자가 증가일로에 있는데다 인터넷 마케팅도 붐을 이루고 있어 기업들의 홈페이지 관리의 갈수록 강화되는 추세다. 따라서 요즘같은 취업빙하기에도 웹마스터들의 일자리는 꽤 있다. 웹마스터 교육기관에서는 대개 이수자들의 취업도 앞선해 준다. 기관마다 편차는 있지만 과정이수자들중 절반정도는 취직이 되는 편이며, 나머지는 IP 창업이나 CP 창업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 웹마스터가 되려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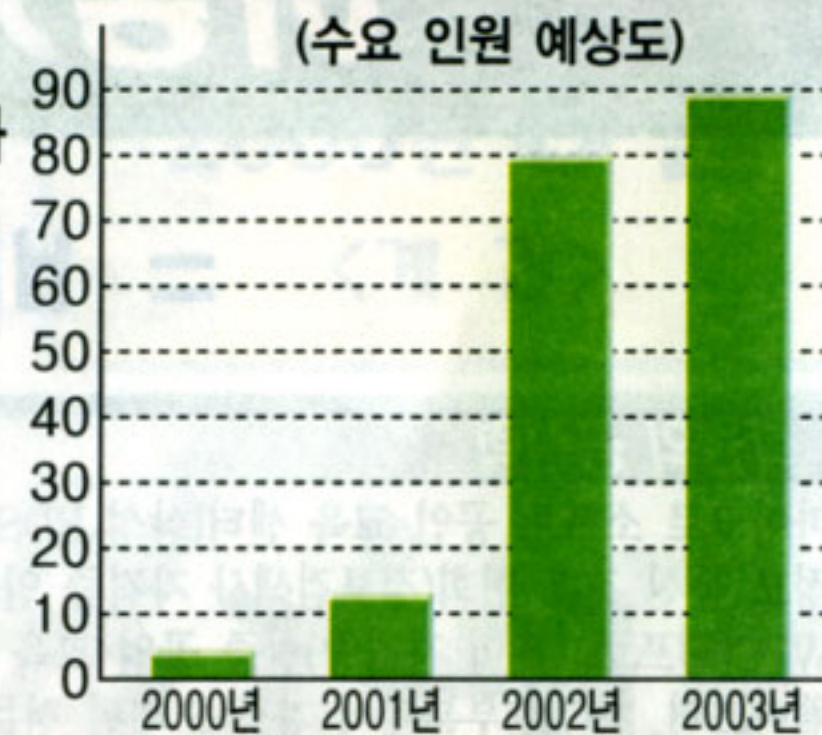
웹마스터가 되기위한 소양이나 자격은 특별히 없습니다. 웹마스터가 되기위해서 학력이나 자격이 정해져 있지 않고 인터넷에 매료된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가능하다는게 웹마스터들의 공통적인 의견입니다. 웹마스터 교육과정도 일부 컴퓨터학원을 중심으로 많이 개설되어 있지만, 교육을 받는다고 웹마스터로서의 자질을 쌓는 것과는 무관하다는게 웹마스터의 세계입니다.

웹마스터가 되려면 인터넷 문화와 기술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과 다방면의 지식이 필요합니다. 단지 기술적인 지식만 뛰어나거나 디자인 능력이 있다고 웹마스터가 되는 것은 아닌데, 웹 프로그램 기술, 디자인, 콘텐츠 기획, 인터넷 마케팅 등 웹과 관련된 부문의 지식이 두루 필요합니다. 또 자신의 웹사이트에 많은 방문자를 끌어들이는 기획 아이디어와 재밌고 눈에 띄게 만드는 엔터테이너로서의 기질도 요구됩니다. 이에 덧붙여 인터넷을 항해시 필요한 영어실력과 인터넷을 생방향성 커뮤니케이션 도구로 활용할 줄 아는 마인드만 있으면 누구나 도전해볼만한 직종입니다.

웹마스터의 수요

21세기 유망 직종으로 웹마스터가 선정되어 있는 등 그 필요성은 다음과 같은 기반에서 증명될 수 있습니다.

- 각 회사의 웹사이트 관리와 유지
- 전자상거래의 활성화
- 사무자동화에서 사무정보와 단계로의 이전
- 학생들의 유망직종 인식
- 정부의 정보화사의 추진 의욕
- 각 학교의 웹 교육환경 조성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전문인들의 일문일답을 통해 웹마스터가 되고 싶은 이들의 궁금증을 풀어보자.

- <다음은 웹매니아에서 발췌한 내용들이다>



웹매니아 : (주)IMTV는 어떤 일을 하는 곳이지?

인동원님 : IMTV는 인터넷 쇼핑물 아플라인과 사이버 물류배송을 주로 하며 그밖에 시스템 통합개발, 통신서비스 등을 하고 있습니다.

웹매니아 : 팀에서 맡고 계신 업무를 위주로 자신을 소개해 주신다면?

인동원님 : 직책이 물마스터인데 쇼핑물을 관리하는 웹마스터라고 할 수 있죠. 쇼핑물에 관한 전반적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신상품 등록, 회원관리, 주문관리, 홈페이지관리, 마케팅, 그래픽, 코딩, 사이트기획...등등이 것 저것 필요한 건 거의 다 하고 있다고 보면 되죠...^^;

웹매니아 : 웹관련 업무는 언제, 어떻게 시작하셨나요?

인동원님 : 제 첫 홈페이지는 1997년 대학교 4학년 때 천리안에서 3M 계정을 준다고 해서 거기에서 이 것 저것 올리면서 시작했죠. 제가 만든 내용들이 인터넷 환경이 되는 곳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게 정말 신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가지 공부를 하다가 대학을 졸업하면서 MIDI를 배우러 다녔습니다. 그때 배우던 학원에서 북한동포돕기 자선운반을 기획했는데 그 음반에 관한 사이트를 만들게 아마 공식적인 홈페이지 1호라고 할 수 있죠.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웹매니아 : 물마스터에게 가장 필요한 능력과 본인에게 가장 부족한 부분은?

인동원님 : 흠...현재 물마스터로 일하고 있는데 사이트가 쇼핑물이다 보니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능력은 아마 쇼핑물 전체를 매끄럽게 운영하는 능력이었죠. 상품수가 많다면 전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통찰력(?)과 전자상거래 전반에 관한 솔루션등도 알아야 하겠죠. 그리고 제가 가장 부족하다고 생각하는건 기획력입니다. 아무래도 쇼핑물의 목적이 상품을 많이 파는 것인데 실제로 보고 만지고 사게 아니라 카탈로그만 보고 구매를 하기 때문에 사이트 기획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요즘엔 어떻게 물을 효율적으로 구성할까 고민중입니다.

웹매니아 : 가장 최근에 읽은 업무와 관련된 책 제목은?

인동원님 : 아무래도 전자상거래쪽이라서 그쪽 관련된 책을 좀 읽었습니다. 인터넷 마케팅길라잡이, 인터넷 전자상거래 쇼핑물 구축에서 운영까지를 읽었고, 많은 상품을 효율적으로 카테고리화 분류하고 레이블링(labeling)을 하기 위해 Information Architecture를 읽었습니다. 그 밖에 컴퓨터 월간잡지도 몇권 보고 있구요...

웹매니아 : 회사의 홈페이지를 제외하고, 반드시 들려보는 웹사이트는 어떤 곳?

인동원님 : 타 쇼핑물 홈페이지를 꼭 봅니다. 아무래도

도 소비자들은 가격에 민감해서 가격 비교와 제품 등을 봅니다. 그리고 비즈니스 관련 사이트도 거의 매일 들어가서 봅니다. 전자상거래에 관한 새로운 소식도 항상 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웹매니아 : 업무에 관련된 정보를 획득하고 계신 곳을 소개해주세요?

인동원님 : 주로 메일메거진을 활용합니다. , , 세군데서 각종 필요한 메거진에 가입해서 정보를 수시로 받아보고 있습니다. 주로 비즈니스와 쇼핑에 관련된 정보를 받아보고 있습니다.

웹매니아 : 지금의 일을 계속하신다면 5년 뒤의 모습은 어떨까요?

인동원님 : 글썄요...특별하게 생각해보진 않았지만 제 예상으로는 쇼핑물 관련 일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너가 되어있든 사원으로 남아있든 계속 웹비즈니스를 할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웹비즈니스가 전망이 있다고 봅니다.

웹매니아 : 하루의 일과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하루 일과를 나열해 주세요.

인동원님 : 커피를 켜자마자 주문확인을 합니다. 저희 쇼핑물은 빠른 배송을 장점으로 하고 있어서 혹시라도 밤사이엔 주문이 들어온게 있으면 빨리 처리를 해야 하거든요...그리고 나서 메일 BOX를 꼭 살펴보고, 메일메거진, 개인 메일, 업무용 메일, 동호회 메일 등등... 메일체크가 끝나면 아플라인을 둘러봅니다. 잘못된 정보는 없는지 가격은 모두 제대로 되어 있는지...간단하게 체크하고 나면 점심시간이고 점심먹은 후엔 꼭 신문을 봅니다. 회사에서 받는 신문이 4종류인데 보통 3~40분이면 다 봅니다. 그러다가 주문 처리하고 신상품 들어오면 등록하고 수정할건 있으면 하고...다른 프로젝트 걸린 사이트 기획하고...그러다 보면 하루가 다갑니다. 물론 매일매일 똑같은 일과로 보내진 않고 어떤 날은 하루종일 상품등록만 할 경우도 있습니다...^^;

웹매니아 : 후배에게 가장 해주고 싶은 말은?

인동원님 : 후배라면 웹마스터인가요? 물마스터인가요? 물마스터는 기본적인 웹마스터 능력에 쇼핑물에 관해 더 알아야 합니다. 실물 경제와 맞물려 돌아가므로 어느정도 실물 경제도 알아야 하고... 저는 웹마스터로 시작했는데 웹마스터로 일하고 싶으신 후배님들이라면 무조건 열심히 하라고 하고 싶네요...이쪽 계통은 아마도 개인능력이 우선이라고 봅니다. 물론 팀워크도 중요하구요. 뭐든지 열심히 하다보면 그만큼 선택의 기회도 넓어질테고... 암튼 적성에 맞고 관심이 있다면 열심히 하세요. 어느 순간 뒤돌아 보면 훌륭한 웹마스터가 되어 있을 겁니다.

웹매니아 : 일을 하면서 재미있었던 업무관련 에피소드는?

인동원님 : 에피소드라고까지 할 수 없고 상품이 많다 보니 제가 모든 상품에 대해 다 알수 없습니다. 또 다 본것도 아니고 써보지도 않았는데 상품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물어볼 때 곤란한 경우가 좀 있었습니다. 특히 성인용품쪽...^^;

웹매니아 : 바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웹매니아에도 좋은 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웹매니아 : 지금 소속되어 있는 곳이 "(주)트론에이지"라는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는 회사죠?

김보현님 : (주)트론에이지는 지능형 쇼핑물 검색 에이전트 서비스와 e-Biz 솔루션 개발 업무를 하는 회사입니다. 즉, YAVIS라는 쇼핑에이전트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ebForte라는 전자상거래 구축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웹매니아 : 자신의 소개를 하고 계시는 업무 위주로 소개해 주신다면?

김보현님 : 글썄요, 항상 자기소개라는 것은 어렵지요. 하지만, (H) 국내최초의 한글 검색 사이트 삼마니와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네피앙 웹마스터를 지냈었고요, 현재 쇼핑 에이전트인 아비스의 웹마스터이자 쇼핑자키의 매니저입니다.단지 > 여기서, 쇼핑자키는 아비스 홈페이지에서 상품 정보 검색을 도와주는 아티스다운 사이버 캐릭터를 말한다. 우측의 사진을 참고!!

웹매니아 : 웹마스터(WebMaster)는 언제부터 시작하셨는지요?

김보현님 : 1995년도부터죠. 우리나라에 인터넷이 등장하여 기업들이 관심을 가지려고 하던때죠. 당시에는 웹마스터라는 직업이라 하면, 알아듣는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지금이라고 많이 알아주는 것은 아니지만...

웹매니아 : 웹마스터라는 업무에 가장 필요한 능력은 무엇이라 생각하시는지요?

김보현님 : 웹마스터는 한사람이기보다는 한팀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 굳이 웹마스터라 불리자면 관리업무가 주가 되어야 하는데, 웹마스터는 실무와 관리를 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재다능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웹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두루 섭렵해야 하지요. 너무 겁을 주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H)

웹매니아 : 만약 이젠 더 할 줄 알면 더 좋을 텐데 하는 것이 있다면?

김보현님 : 자고 나면 달라지는 것이 인터넷입니다. 또, 그러다 보니 어제는 홈페이지에 대한 것만 알면 되었지만, 오늘은 전자상거래, 내일은 또 무엇을 알아야 할지... 완벽한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게 부족하지요. 매일 매일 공부하고 노력하고... 그

게 웹마스터의 일이라 생각합니다.

웹매니아 : 5년 뒤의 모습과 10년 뒤의 모습을 상상해 보신다면?

김보현님 : 솔직히 상상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루하루가 새롭기 때문에 아직 생각해 볼 겨를이 없었습니다.

웹매니아 : 하루의 일과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평균적인 하루일과를 나열해 주세요.

김보현님 : 아침에 하는 일들은 전날 운영 사이트의 로그 분석하는 업무와 웹마스터 앞으로 수신된 전자메일 확인 및 답장, 게시판에 올라온 글들을 읽어보고 답장하고, 웹사이트가 정상적으로 동작 중인지 확인하는 거죠. 사실 대부분이 업무가 오후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많지만요. 오후에 사이트 점검이 끝나면, 신규 사업 구상 및 그에 관련된 준비, 운영 웹사이트 보안, 관련된 사이트 웹서핑, 팀원 관리까지 하면 해가 떨어지지요. 주로 인터넷과 함께하는 하루입니다.

단지 > 김보현님은 일주일에 2일정도만 집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한다. 인터넷 앞에서 보내는 시간이 하루 15시간이 넘는다는데..

웹매니아 : 누군가 웹마스터가 되겠다고 어떻게 준비를 하라고 하시겠습니까?

김보현님 : 인터넷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수단이지요. 그 자체가 목표가 되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아비스가 그 사이트를 운영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고, 가장 적합한 물건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웹이라는 도구를 이용한 것처럼, 웹마스터가 되고자 한다면, 웹을 포함한 인터넷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하지만, 웹을 통하여 하고 싶은 그 무엇에 관해서도 잘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다양한 분야에 폭넓은 지식이 필요합니다. 흔히 말하는 T자형 인간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단지 > T자형 인간형이란, "-"처럼 넓게 알고, "|"처럼 깊게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웹매니아 : 마지막으로 사이트에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해주세요!

김보현님 : 웹이라는 것이 자고나면 새로운 것이다 보니, 웹관련 업무를 하려는 사람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새로운 정보를 습득하고 기술을 찾아 헤매는데 쓰게 됩니다. 웹매니아가 이런 일을 대신해 줌으로써 정보에 목마른 웹관련 종사자들의 갈증을 해소시켜 주는 사이트가 되었으면 합니다.

웹매니아 : 바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웹매니아에 많은 조언을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웹마스터가 될 수 있나?

= 비트컴퓨터학원 웹마스터 교육과정 안내 =

1. 학원의 공신력

- 마이크로 소프트 공인 교육 센터(삼성 EDS포함 전국 24곳), 학원으로서 대구 유일
- 정보 통신 진흥 협회(정보검색사 자격증 인증 협회) 인증 공인 교육 기관
- WPC(웹프로그래머 자격증)인증 공인 교육 기관
- 웹마스터, MCSE부분에서 가장 오래된 전문 교육 센터 1998년 시작
- 현 업체와의 오래된 기술 제휴로 현장에서 전문가들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커리큘럼화. 맞춤식 강의 지향. 수료후 곧바로 현장 업무 가능

2. 강사의 신뢰성

- 김상희(webby@orgio.net)

- 마이크로 소프트 공인 강사
- New Jersey, M.C.C COMPUTER SCIENCE INFORMATION 전공
- Novell Netware, Windows NT Server 부전공
- New York미주 한인회 인터넷 실시간 중계 project에 참여
- (주)영진출판사 MCSE Master Bible Windows NT Server 4.0 기술감수
- (주)영진출판사 MCSE Master Bible Windows NT Workstation 4.0 기술감수
- (주)컴피플 Microsoft Press MCSE Readiness Review Windows NT Server 번역
- (주)컴피플 Microsoft Press MCSE Readiness Review Windows NT Workstation 번역
- 한국 정보 기술 연구원, WPC 인증 위원
- 한국 MCP 시삽으로 활동 중
- 현재 대구 드림 FM 99.3 사이버 환타지 에서 "웹비의 인터넷 세상 인터넷 이야기" 진행 (매주 화요일 저녁 12시~1시)
- 현재 대구 BIT COMPUTER 학원서 Network과정, 인터넷 정보검색사 및 MCSE 강의
- 그의 전산학 석사급 최고의 강사 포진.

3. 교육중 서비스

- 강의에 자신감 없이는 할 수 없는, 투명한 강의의 일환으로 "선청강, 후등록제" 실시. 누구든지 수업을 먼저 일주일동안 들어보고 학원과 강사에 대한 신뢰가 형성된후 등록 절차를 거치도록 배려. 요즘들어 부쩍 난무하는 웹마스터 과정의 교육기관들과 차별화를 두기 위해 학생들에 의한 평가를 받고자 과감히 선택 했습니다.
- 교육중 수업을 못 듣거나 똑 같은 현장 강의를 재 복습 하고자 하는 학생들을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강사의 고급 현장 강의를 그대로 데이터 베이스화 하여 언제든지 웹마스터 반에 한하여 계정을 발급 언제든지 가상 강의를 들을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
- 그외에 계명 문화대 전산과 교수로 계시는 전 진하 교수님의 "정보처리 기사 강의"를 인터넷 상에서 무료로 들을수 있는 특전 부여. 전산학을 체계있게 습득할수 있도록 최선의 배려를 했습니다.
- 매일 오후 1시부터 저녁 7시 까지 강의실을 개방. 쾌적한 환경에서 자유롭게 실습 할수 있도록 실습실 운영. 다른 학원과는 달리 전임 강사제 실시로 의문시 언제든지 강사와의 일대일 교육 가능.
- 과정의 마지막 단계시 "쇼핑몰 구축" 프로젝트 수행.

4. 사후관리

- 모든 성적 우수자에게 업체 취직시 필요한 수료증인 BCWM(BIT Certified Web Master) 부여 (수업 준비(20%), 수업 참여도(60%), 팀과의 융화(10%))
- 비트의 웹마스터 학생 데이터 베이스에 등록 비트만의 고급 정보(고급 기술, 현장의 흐름, 취직관련 정보 및 알선)를 평생 받게 됩니다.

5. 웹마스터 커리큘럼

"어느덧 우리는 "대학은 선택, 자격증과 실무는 필수"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비 전산전공자이기 때문에 할 수 있을까 라는 막연한 두려움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의 기사들을 읽으신 분들은 이제 더 이상 현재의 나에게 주어진 조건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내가 그 길을 개척하겠다는 의지와 내가 이분야를 재미있게 해 나가느냐(적성)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각 과정이 끝날때마다 취업이나 승진시 유리하게 쓰여질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권유하고 있고 또 지금까지 많은 학생들이 그 대로 잘 따라와 주어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먼저 위에 나와 있는 인터넷 실무자 1, 2를 들으신 후에 정보검색사 자격증을 따시면 됩니다. 참고로 이 자격증은 9월 이후에 민간 공인 자격증 중에 최초로 정부 공인이 되어질 전망입니다. 그 다음 마이크로 소프트의 OS인 엔터를 공부하시면서 마이크로 소프트가 인증하는 자격증인 MCSE를 따실수 있게 됩니다. 이 자격증을 취득하는 동안 MCPs, MCPs+Internet이라는 자격증이 더불어 주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이크로 소프트 디벨로퍼 과정 이수후에는 마이크로 소프트가 인증하는 국제공인 자격증인 MCDBA를 취득할수 있습니다. 이 자격증은 데이터 베이스 관리자의 능력을 입증하는 자격증입니다.

이 과정까지가 마이크로 소프트의 솔루션을 이용한 확실한 웹마스터 코스 이며 10개월 과정입니다.

이제 두번째로 "현장 실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저희 비트는 8년간의 업체 시스템 구축 노하우로 현장에서 어떤 인력이 필요한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가치를 높여주는데는 단연 그만의 "Skill"이 있느냐 하는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저희 과정을 모두 이수한 후에 얻을수 있는 능력을 간략히 적어 보겠습니다.

첫째 단계, 웹 마케팅과 전자 상거래 관리, 업체에서 중요하게 쓰일수 있는 전문 정보 검색, 기타 인터넷 전문 활용 능력

두번째 단계, PC 게임방 정도의 랜 구축, 윈도우 엔터를 기반으로 하는 네트워크와 웹서버의 구축 및 운영

세번째 단계, 마이크로 소프트 디벨로퍼 과정을 거치면서 여러분은 어디서든 경험하지 못했던 "사이코 드라마 형식의 현장 체험"을 하게 됩니다. 두개의 조로 나누어 한쪽은 쇼핑몰 구축 의뢰 업체 한쪽은 구축 업체로 설정합니다. 그후 웹디자이너 1명, 데이터 베이스 관리자, 하드웨어 전문가, 웹 PD, 웹프로그래머 등으로 5명을 구성해서 실제로 관계자를 만나 명함을 주고 받는 요령에서부터 팀 단위의 회의 요령, 업무 분담 지도, 그리고 마지막에는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모든 장비를 제공하여 여러분은 서버를 PC조립부터 운영체제 설치 그리고 ASP를 이용한 쇼핑몰 구축 솔루션 까지 끝마치시게 됩니다. 이것이 비트가 여러분에게 줄 수 있는 전부입니다.

학원에서 더 이상을 바라시겠습니까

님의 인생에 잊을수 없는 전환을 비트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Microsoft Certified

Technical Education center

마이크로소프트 공인 기술 교육센터



정보통신진흥협회 인증
- 정보검색사 교육 공인 학원

Microsoft Certified
Solution Provider

마이크로소프트 솔루션 제공업체

KITRI

한국정보기술연구원
- 웹프로그래머 자격시험 공인 학원

※ 비트 교육과정 안내 ※

일과과정	반정	▶ 컴퓨터 활용 ▶ 인터넷 활용
전문가과정		▶ 그래픽 전문가 과정 ▶ 웹디자이너 양성 과정(드림위버, 플래쉬) ▶ 웹마스터 과정(전자 쇼핑몰 구축) ▶ 웹프로그래밍 양성(JAVA)
자격증과정		▶ 정보검색사 ▶ MCSE ▶ 정보처리기사

소프트웨어 개발 / MCSE / Web 전문가 양성 전문 교육기관 < <http://www.bitcom.co.kr> >



비트컴퓨터학원

T. 428-3230~1 (명덕로타리 지하철역 입구)